

서식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원고는 **2매(맑은 고딕체, 글자 11)이상 작성합니다.**

인생은 B와 D사이의 C,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인권과 헌법>

2022년 2학기, 나를 변화시켜주었던 강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1학년으로서의 2학기를 막 시작한 나는 수강정정 기간에 여러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며 내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찾아 나섰다. 사실 정작 이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듣진 못했다. 학점은 채워야 하고, 맞는 시간이 딱 이 강의뿐이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리엔테이션을 듣지 못해 이 강의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 강의인지도 모른 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인권과 헌법> 수업은 나의 진로도 바꿀 만큼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해당 에세이에서는 내가 위 과목을 명강의로 선택한 이유, 강의의 수업운영방식, 나의 느낀 점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전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업운영방식

헌법을 전공하신 오동석 교수님은 일명 '고강도 상호작용학습'을 통해 한 학기의 수업을 진행하셨다. 고강도 상호작용학습이란 사회에서 논쟁으로 붙여진 사례를 교수님께서 아주 BB에 올려주 시면 수업 전날까지 스스로 자료를 이해하고 본인의 의견을 확립한 뒤 수업시간에 학우들과 함께 본인의 입장을 밝히며 다양한 견해를 학습하는 수업 형태이다. 사회에서 논쟁인 이슈로 낙태죄 폐지, 역차별, 아기 기후 소송, 양심적 병역 거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을 다루었다. 하나의 이슈에 대해 내가 법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조문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정립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예를 들면 여자대학교와 여성전용주차장과 같이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역차별에 대해 본인의 주장을 서술하는 차시가 있었다. 나는 역차별에 대해 '기피할 수 없는 사회의 과도기적 현상'이며 헌법 제 10조의 존엄권("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을 제시하고 이때까지 여성이 받아온 차별과 그 여성이 앞으로 받아야 할 보상적인 대우 차원에서 나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수업에서 활용되었던 '고강도 상호작용학습'이 재미있었던 이유가 아무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백한 해결과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아기 기후 소송¹⁾을 예로 들어보면, 심각한 환경파괴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청구인으로 아이 이름을 사용하여 시급한 우리 사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자고 주장하는 상황이 있는 반면, 환경에 대한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며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의 허락 없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대립 된다. 이렇듯 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언급되고 그 주장에 대한 조항 근거마저도 서로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 강의가 매우 재밌었다. 게다가, 본인의 주장을 말하는 수업환경이 매우 자유로웠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 색달랐던 것 같다. 중고등학교, 대학강의에서의 수업은 선생의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우들에게 시간적으로 피해가 갈까봐 질문이 있어도 사소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서식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원고는 **2매(맑은 고딕체, 글자 11)이상 작성합니다.**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도 해당 강의가 '고강도 상호작용학습' 수업으로 처음이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더욱 다양한 견해들이 모여 유익한 학습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 강의를 듣고 느낀 점

인문대학 강의에서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나의 주장과 근거는 모두 나로부터 나오고 나의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학우들과 피드백하고 상호소통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이러한 사례에서는 어떤 조항을 근거로 들어야 가장 적합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두의 주장과 생각이 달랐기에 차이를 학습하는 방법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익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매주 마다 올려주시는 사회적 이슈를 학습하고 배우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 인해 딜레마적인 상황이 붙어지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개개인의 인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이는 국가조차도 본질적인 개념으로서 침해할 순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해 토의하며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며 대체복무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국방의 의무를 저선 안되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인지 모두의 생각이 다르기에 이 사안 역시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이렇듯 법을 적용한 사례에서 명확한 해답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러 많은데 <인권과 헌법>에서는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자 마땅한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쳐나갈지, 즉 사회에 대항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가르쳐 주었다. 모두가 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나의 주장과 근거가 설득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 외롭더라도 용기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기른 것 같다. 강의 중에 교실을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 한 사안에 대해 찬성이면 왼편, 반대이면 오른편에 앉아 논리와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주장을 하였는데 자리를 바꾸는 시간을 가질 때 나의 주장으로 인해 상대방이 나와 같은 편으로 넘어올 때의 뿌듯함은 나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다. 훗날 나의 목소리가 위헌을 바로 잡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벅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과 헌법> 종강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사회적 이슈는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의 헌법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위헌을 무시하지 말고 올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는 사회인이 되길 희망한다. 라고 말하시면서 모두에게 주어진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라고 역설하셨다. 강의 마지막 날에야 비로소 나는 교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바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교양수업으로 열린 이 강의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헌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다. <인권과 헌법>을 통해서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천부적인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본인만의 논리성을 쌓아 타당한 주장을 만들고 남을 설득하는 힘을 가르치고자 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이 강의를 명강의를 선택한 이유

한 학기동안 <인권과 헌법>의 고강도 상호작용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께서 한 번도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셨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나도 생각해볼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이다.'와 같이, 지식 제공자와 습득자의 관계가 아닌 견해와 소통이 오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학습하여 라포를 형성한 것이

서식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원고는 **2매(맑은 고딕체, 글자 11)이상 작성합니다.**

이 강의가 명강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학생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메모장과 휴대용 헌법 책자를 지니고서 수업에 임하셨다. 대학 강의는 교수와 학생 간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딱딱한 분위기로만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오동석 교수님은 과연 달랐다. 학생을 전공, 개인적인 감정, 학번 등으로 차별을 전혀 두지 않으셨고 모두에게 인정을 보였던 배울 점이 많은 교수님이셨다. 그러한 상냥한 교수님 밑에서 진정으로 순수하게 학문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수업의 일원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다. 또한 이 강의를 통해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본인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경청을 통해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인권과 헌법> 강의 시간에 배울 수 있었던 존중, 이해, 소통의 가치를 더불어 공유할 수 있었기에 그만큼 의미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이 명강의로 선정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이다. 비난의 화살을 서로에게 겨누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진 척박한 이 사회에서 결국 살아남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들이 화합해야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건강한 목표를 위해 서로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기뻐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응원해주고 스스로 반성도 해가며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사회의 최종적이자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이 강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서 학우들이 다른 의견으로 충돌을 빚고 상충을 하더라도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의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며 학문적 동기부여를 받곤 했다. 나의 세계 안에 있던 내가 무의식적으로 점차 개방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한층 성장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에서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안들을 다뤄보며 시사에 대한 흥미가 증진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이 세 번째 이유이다. 세계화, 국제화로 인해 복잡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단편적이지 않아 스스로 배제할 때가 많았는데 기사나 뉴스를 보고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헌법적인 조항을 들어 옹호하고 비판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었다. 물론 <인권과 헌법>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한 과정을 체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2-3주 가량은 나의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해 해매곤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나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 과정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깨우친 것도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더불어 오는 뿌듯함은 자기효능감을 충족하여주었기에 상당히 유익했고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인권과 헌법> 강의를 명강의로 택하였다.

- 글을 마치며

아주대에 입학한 후 1년 동안 가장 의미 있고 배운 점이 많았던 강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인권과 헌법>을 추천할 것이다. 물론 아주대의 강의 커리큘럼과 훌륭한 교수진들의 가르침으로 대부분의 강의가 뛰어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계중에도 사회 문제에 익히 관심이 있거나 해결이 나지 않는 현안에 대하여 심화적으로 토의해보고 싶은 학우들께 이 강의를 적극 추천한다. 나의 글을 읽고 <인권과 헌법> 강의를 듣게 된다면 현재 붙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가볍게 확인한 후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미리 학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 역시도 고강도 상호작용 수업에 익숙하지 않아 교수님의 주도 아래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종강을 하고 생각해보니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 수업 시간에 다뤄보고 싶었던 사회적 이슈를 발췌해 가지 않았던 것에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내가 이 강의를 다시 듣게 된다면, 스스로 생각해

서식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원고는 **2매(맑은 고딕체, 글자 11)이상 작성합니다.**

보고도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바르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지 고안해볼 것이다.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여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겨내야 할 산이다. 이 강의를 통해서 발표와 목소리를 내는 것에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이다. 따라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어나갈지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해결책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강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인권과 헌법> 수업을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 1) 아기 기후 소송: 시민사회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탄소감축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현행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의 특징은 20주차 뱃속 태아도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는 등 소송의 주체가 태아를 포함한 아기라는 점이다.